



# ‘만능 리드오프’ 박재현 타선의 새 심장이 되다

40경기 47안타 7홈런 10도루 타율 0.338 맹활약  
타격 타이밍 변화·수비 강화 등으로 잠재력 폭발



KIA 타이거즈 외야수 박재현이 팀 타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빠른 발과 장타력을 앞세워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 박재현은 19일 경기 전 기준 40경기에서 139타수 47안타 7홈런 26타점 26득점 10도루 타율 0.338을 기록했다. OPS(장타율+출루율)는 0.927에 달한다. 팀 내에서는 김도영(0.96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5월 들어 기세가 무섭다. 이달 타율 0.406에 6홈런 17타점을 몰아치며 KIA 공격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최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주말 3연전에서는 박재현의 존재감이 더욱 빛났다. 15일 경기에서는 9회 역전 결승 투런포를 터뜨렸

고, 16일에는 팀의 영패를 막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다. 17일 경기에서는 6타수 5안타 2타점 4득점 2도루를 기록하며 팀의 16-7 대승을 이끌었다. 단순히 잘 치는 타자만은 아니다. 박재현은 출루 이후에도 상대 배터리를 끊임없이 흔든다. 삼성과의 3연전 마지막 날 1회와 2회 연속 안타로 출루한 뒤 연달아 2루 도루를 성공시켰고, KIA는 이를 발판 삼아 초반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득점권 타율 0.424 역시 눈에 띈다. 리드오프로서 밥상을 차리는 역할은 물론, 해결사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2025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5순위로 KIA에 입단한 그는 지난해 58경기에서 타율 0.081 OPS 0.256에 그쳤다. 그러나 1년 만에 장타력을 갖춘 호타준족 외야수로 완전히 변신했다. 변화의 시작은 겨울이었다. 박재현은 웨이트 트

레이닝을 통해 체중을 4~5kg가량 늘리며 힘을 키웠고, 타격폼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이범호 감독은 “캠프 때부터 타격코치와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 타격 연습량도 많았고, 타이밍도 여러 방식으로 바꿔봤다. 4~5개씩 변화를 줘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계속 연구했다”면서 “특히 카스트로의 타격 자세를 보면서 힘을 빼고 한 번에 힘을 쓰는 부분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경기 때까지는 완전히 몸에 붙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공을 자신 있게 치기 시작했다. 투수 공략이 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며 “결국 자기에게 맞는 자세를 계속 연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여러 타격폼을 실험하며 시행착오를 반복했고, 결국 현재의 스윙 메커니즘을 완성한 것이다.



지난 2일 KT전 경기에서 도루한 박재현.

수비 안정감 또한 성장 배경 중 하나다. 그는 지난해 프로 무대에서 외야 수비 적응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스프링캠프부터 꾸준히 외야 수비 훈련에 집중하며 안정감을 찾았고,

이는 공격에서도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KIA 타선은 최근 박재현과 김도영이라는 젊은 축을 중심으로 더욱 역동적인 야구를 펼치고 있다. 김도영이 강력한 장타 생산 능력으로 중심을 잡는다면, 박재현은 빠른 발과 공격적인 주루, 예상 밖의 장타력으로 상대를 흔든다. 여기에 대체 외인 타자 아테를린까지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KIA 타선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다만 변수는 체력이다. 박재현은 아직 1군 풀타임 시즌 경험이 없는 2년 차 선수다. 긴 시즌 속 체력 저하와 상대 팀들의 분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KIA의 새로운 히트상품으로 떠오른 박재현, 그가 앞으로도 활약을 이어가며 팀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무패 질주’ 광주FC U15, 전반기 정상 우뚝

K리그 주니어 리그서 7승 1무  
창단 첫 우승...경쟁력 입증

최다 득점·최소 실점 기록  
공격수 김강빈 득점 1위 활약

프로축구 광주FC U15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앞세워 전반기 리그 정상에 올랐다. 광주FC U15(이하 광주 U15)는 지난 16일 안양자유공원에서 열린 2026 K리그 주니어 U15 A권역 저학년(U14) 리그 FC안양 U15와의 경기에서 5-1 대승을 거두며 무패 우승을 확정했다. 광주 U15는 이번 리그에서 8경기 7승 1무를 기록하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저학년 리그 정상에 오르며 유소년 강호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공수 양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광주 U15는 리그 최다 득점인 26골을 기록했

고, 실점은 7골에 그쳤다. 공격에서는 날카로운 결정력을 앞세웠고, 수비에서는 조직적인 압박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공격수 김강빈의 활약도 돋보였다. 김강빈은 리그 8경기에서 5골을 터뜨리며 득점 부문 1위에 올랐다.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내며 팀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번 우승은 최근 광주FC U18의 리그 우승에 이어 나온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광주는 연령별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선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꾸준히 유망주를 배출하며 K리그 대표 유소년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U18에 이어 U15 저학년팀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며 구단 유소년 시스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경험과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프로축구 광주FC U15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앞세워 전반기 리그 정상에 올랐다. 사진제공=광주FC

## 광주은행 배드민턴 조송현, 대통령기 전국대회 ‘우승’

김유정과 남녀복식 결승  
이종민-이유림 2-0 완파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조송현이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2026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혼합복식 정상에 올랐다.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조송현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유정(삼성생명)과 호흡을 맞춰 출전, 혼합복식 결승에서 이종민-이유림 조(이상 삼성생명)를 2-0(23-21 21-19)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조송현-김유정 조는 대회 기간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무패 우승을 달성했다. 64강에서 기권승으로 출발한 조송현-김유정 조는 32강에서 추천(전주시청)-방주영(시흥시청) 조를 2-0(21-8 21-5)으로 완파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어 16강에서는 노민우(이천시청)-방지선(화성시청) 조를 2-0(21-15 21-5)으로 제압했고, 8강에서는 신태양-김보령 조(이상 김천시청)를 2-0(22-20 21-9)으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조송현(왼쪽)이 김유정과 함께 출전한 ‘2026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녀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준결승에서도 이민서-장하정 조(이상 인천스카이문스)를 2-0(21-16 21-11)으로 물리친 조송현-김유정 조는 결승에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력을 앞세워 이종민-이유림 조를 제압,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전국체육대회와 함께 국내 최고 수준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꼽힌다. 특히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 포인트 비중이 큰 만큼 조송현은 이번 우승으로 국가대표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조송현은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태극 푸켓 챌린지와 마카오3000대회 등에 출전하며 실전 감각과 경기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방신실, 시즌 첫 다승 도전...E1 채리티 22일 개막

직전 대회 우승으로 상승세...박현경, 대회 첫 2연패 도전

방신실이 시즌 첫 다승 선적을 노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6시즌 9번째 대회인 ‘제14회 E1 채리티 오픈’(총상금 10억원)이 22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여주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린다. 방신실은 8차례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8명의 우승자가 탄생, 아직 다승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다. 특히 채리티 대회 역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다승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직전 대회인 두산 매치플레이 우승자인 방신실은 이번 대회에 좋은 추억이 있다. 그는 2023년 대회에서 18세 8개월 3일의 나이로 우승, 이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자 기록을 남기며 자신의 KLPGA 투어 마수결이 승리를 따냈다.

2023년 KLPGA 투어 데뷔 첫째 2승을 거두고 지난 시즌 3승을 끌어 담아 공동 다승왕에 올랐던 방신실은 올 시즌 두산 매치 플레이어의 결과로 자신감을 가득 채웠다. 방신실은 “‘E1 채리티 오픈’ 역시 내게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한 정말 특별한 대회다. 좋은 기억이 있는 만큼 매년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하고 있다”며 “매력롭지만 티샷 정확도와 아이언 샷으로 핀을 공략하는 능력이 중요한 코스인 만큼, 우선 티샷으로 페어웨이를 지키는 데 가장 집중하면서 플레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의 경쟁자로는 디펜딩 챔피언 박현경이 꼽힌다. 박현경은 지난해 대회 우승 상금 전액을 기부했고, 올해는 대회 사상 첫 2연패에 도전한다.



박현경은 “난도가 높은 코스에서 노보기 플레이로 우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자부심이 느껴진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면서 타이틀 방어에도 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유현조와 김민솔, 임진영, 김민선7, 고지원 등 시즌 1승을 기록 중인 선수들도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장을 내민다. 역대 우승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배소현과 정윤지, 지한솔, 이소영, 이다연, 이정민 등이 다시 한번 정상 탈환에 나선다. 송하중 기자 hajong2@